

# 이통사 가입자 유치 경쟁 가열 '보조금 광풍'

“동일모델 휴대폰 가격이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통신사 믿고 구입하겠습니까?”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넣은 밥 ‘깜짝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도를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을 정상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국회에서 통과조차 불투명해 단말기 유통 문제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밤 스마트폰과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싼값의 스마트폰을 파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들로 게시란이 도배됐다. 11일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앞마다 소문을 들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

아이폰·갤럭시 10만원대

하루 10만명 번호 대이동

단말기법은 국회서 낮잠

고 찾아온 소비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누리꾼들이 ‘2·11 대란’으로 명명한 이날 삼성과 애플, LG 등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의 최신 스마트폰에 이동통신사들은 100여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보조금을 풀었다. 할부원금 기준 갤럭시노트3 10만원, 아이폰 5S 15만원, G2 5만원 등 정상적인 유

통구조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가격들이었다.

직장인 김모(38)씨는 “즐겨 찾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밤 11시가 넘어 ‘스팟 정책’(이통사가 단 시간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것) 스마트폰을 알게 돼, 다음날 새벽 예약을 한 뒤 광산구의 한 대리점에서 갖고 싶었던 스마트폰을 일반 대리점보다 50만원이나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가 구입한 아이폰5S의 가격은 2년 약정기준 15만원(할부원금)으로, 광주 충장로에 모여 있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60~70만원대 가격과 비교하면 턱없이 싸다.

대규모의 보조금 폭탄이 투하된 이유는 이통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

쟁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1일 싼값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이통사로 넘어간 번호이동자 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열 기준인 2만4000명보다 4배가 많은 10만9112명이었다. ‘반짝 정책’으로 일부 소비자가 ‘황제’를 하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성토하고 나섰다. 심야에 대리점 문을 열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보를 올려 극소수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기만 행위라는 것이다.

직장인 박모(36)씨는 “같은 제품이 10~20만원도 아닌 5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누가 정가가를 주고 스마트폰을 사려 하겠냐”며 “이통사들이 나서서 시장 교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조금 지급 처벌을 금지해 소비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안은 지난해 미래과학장조부가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특검법 등 민감한 사안에 밀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 이통사 대리점 업주는 “최고 27만원으로 정해진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단말기 유통시장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3일 서울 아시아나타워에서 아시아나항공 신입 캐빈승무원들이 ‘임직원 1만명 돌파’를 축하하며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시아나 제공)

##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1만명 시대

창립 26년만에 달성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26년 만에 임직원 1만명 시대를 맞이한다.

아시아나는 14일 서울 아시아나타워에서 열리는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신입사원 100명(캐빈86명, 운항승무원 14명)의 입사식을 개최한 뒤 임직원 1만명 돌파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1988년 제2민항사업자로 선정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823명에서 2013년 말 현재 1만1233명으로 13배 증가했다. 2013년 말 현재 임직원 1만1233명, 운항승무원 1407명, 정비 1234명, 운항관리 113명, 영업 및 일반 직원 2420명

등 총 임직원 1만787명을 기록했다.

국내 24개 지점(여객 10개, 화물 3개, 공항 11개), 해외 126개(여객 70개, 화물 17개, 공항 39개) 지점을 운영 중인 아시아나는 올해에도 캐빈승무원 370여명, 일반직 290여명, 운항승무원 120여명 등 920여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현 아시아나 사장은 “직원 1만명 돌파는 지난 26년간 아시아나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라며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채용으로 국가 취업난 해소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영농도우미·마을 활성화 컨설팅·안전지킴이

## 농어촌공사 '농산어촌 행복충전 사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올해부터 농산어촌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산어촌 행복충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맞춤형 행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행복성장, 행복나눔, 행복가꿈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과제로는 ▲고령농가의 농기계 임대·수리 등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공사가 운영 중인 지역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소외지역마을의 컨설팅을 시행하는 ‘소외지역마을 활성화 컨설팅’ ▲공사의 시설유지관리 업무와 병행해 재해발생상황이나

안전취약지구를 문자로 알려주는 ‘안전지킴이’ ▲각 직사가 보유한 공영차량을 활용해 버스 미운행지역의 교통지원 사업 등이다.

이 밖에도 ▲마을별 경관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을 관리 위원으로 채용하는 ‘경관보전·관리사업’ ▲마을 주변의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소규모 문화공간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자체자금을 포함한 3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전국 각 시·군에 위치한 93개 지사를 전담조직으로 활용해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유통업계 AI 시름 양계농가 돕기

###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팔 걸었다

유통업계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시름이 깊어가는 양계농가 지원을 위해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 촉진에 팔을 걷고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AI 발생일(1월 17일)이후 이달 11일까지 26일간 대형마트에서 닭고기 매출은 발생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4% 감소했으며, 오리고기는 4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매출이 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매출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업계는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유통마진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오는 26일까지 2주간 AI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를 돕기 위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닭고기와 오리고기 전품목을

40% 할인해 판매하며 평소대비 3배의 물량인 닭 90만마리, 오리 10만마리 총 100만마리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역시 양계농가를 돕기 위해 AI로 인한 여파가 해소될 때까지 닭·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과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협도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원에 나섰다.

농협은 AI 발생으로 위축된 닭·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닭·오리고기를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 부처별 시식행사,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한 소비촉진행사, NH농협은행 닭·오리고기 사은품 제공, 제12회 오리데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인 양계농가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시고용진흥원 '청년, 일자리로드쇼'

(재)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이 13일 광주시 동구 조선이공대 3호관 대강당에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로드쇼’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정순임 ㈜다인시스템 대표의 멘토특강과 채용설명회, 정준남 전사재가노인복지센

터 센터장의 취업특강을 비롯, 구직상담 및 무료이력서 촬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실시됐다.

‘청년, 일자리로드쇼’는 동강대학교와 서영대학교 등 광주 소재 특성화고 및 대학교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닭·오리고기 맛 있어요”

1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열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에서 행사 도우미가 어린이에게 닭고기 요리를 먹여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AI 발생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농가를 돕고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열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에서 행사 도우미가 어린이에게 닭고기 요리를 먹여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AI 발생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농가를 돕고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열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에서 행사 도우미가 어린이에게 닭고기 요리를 먹여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AI 발생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농가를 돕고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코스피지수 1926.96 (-8.88)	코스닥지수 521.82 (+1.18)	금리 (국고채 3년) 2.84% (-0.01)	원·달러 환율 1066.40원 (+4.00)
--------------------------	-------------------------	------------------------------	-----------------------------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뽕드뽕뽕)의 이호영 대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